

왜곡된 가치관·특정종교 편견 심어줘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의 불교관련 오류는 종교편향적 편집 등이 지적된다. 3학년 음악 교과서의 경우, 즐거운 노래 모음에 찬송가인 '탄일종'이 선택되어 기술되었는가 하면, 도덕 교과서의 '생활의 길잡이'라는 단원에서는 불교관련 내용이 없는 반면, 기독교에서는 슈바이처의 기도 부분과 교회의 종소리를 내세우고, 오종진 신부의 꽃동네 이야기, 빈민골의 성자 테레사 수녀의 일생 구제, 기독교 연대(CSI)의 활동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활동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중학교

화쟁 등 용어설명 불충분

▶도덕=제7차 교육과정에서 편찬된 중학교 도덕 1.2 교과서의 특징은 단원마다 '인물화'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도덕1에는 원효, 석가모니 등이 설명되고 있는데,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인지능력으로 이해하기 힘들게 설명되고 있다. 원효의 화쟁사상, 열반, 8정도 등의 불교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학습자의 수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도덕1의 75쪽 자료사진에 나오는 <대승기신론소>의 책은 원효대사의 저술이 아닌 중국 법장대사의 저술이 원효의 저술로 바뀌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종교편향적 집필과 편집도 지적된다. 도덕1 첫 단원 '삶의 의미와 도덕'에서 '어느 학생의 인생관'이 그래프로 설명하는데, 신타할아버지의 그림과 십자가 표시의 묘지 그림이 삽화에 나타나 있다. 도덕1, 74쪽과 도덕2, 236쪽에 똑같은 원효대사의 영정이 중복되어 있다. 도덕1, 61쪽 '세기의 천사' 테레사 수녀의 사진, 103쪽 가톨릭 교황의 사진, 105쪽 오종진 신부의 '꽃동네 이야기', 도덕2, 77쪽에 마틴 킹 목사 등 근래 살았던 종교인들이 실린 반면, 불교인은 단 한명도 없는 점도 지적된다.

'독립운동가 한용운'만 강조

▶국어=중1 국어, 생활국어, 4권과 올해 새로 편찬 중인 중2 국어, 생활국어 2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된다. 불교문학 작품의 경우, 고작 한용운의 시 '나룻배와 행인'과 불경 '법구비유경 쌍요품' 인용이 전부다. 중2, 1학기 국어 102쪽에 '우리 고전의 맛과 멋'이란 단원에 실린 '서동요'에서는 지명법사의 주술성과 비현실성이 엿보여 스님의 언행과 불교가 황당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중1, 2학기 '능동적으로 읽기' 단원에 실린 '오조음 식생활'에서는 법정 스님의 <새들이 떠난 숲은 적막하다>의 글귀를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중·고등학교 도덕 등을 비롯해 각 과목별 새로운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방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번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은 기존의 6차 과정을 골간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종교일반'이 강화되고, 중립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도 교양과목으로 선택할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춰 준비된 이번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나 개편된 초·중·고교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불교 관련 내용의 서술 오류, 종교편향적 서술, 편집상 부정확한 자료사진 수록 등 국정 교과서로서의 공신력까지 의심해 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교과서는 인성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가치관과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다음은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 문화연구소가 1일 발표한 초·중·고교의 교과목 가운데, 불교 관련 내용이 언급된 국어, 국사, 도덕, 수학과목 등의 불교관련 내용오류와 종교편향적 집필과 편향 사례 등을 정리한 것이다.

초·중·고 교과서 불교관련 오류·편향 사례

인용, 마치 스님을 환경론자로 부각시켜 수행자로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반면, 강원 통 목사의 <30년 전의 그 날>이라는 수필은 자연스럽게 목사라는 신분에 걸맞은 진솔한 신앙고백으로 깊은 감동을 주고자한 글의 의도가 보인다.

이 같은 상반된 종교편향적 의도는 중3 국어책에 나오는 '만해 한용운'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용운 스님의 모습보다도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제6차교육과정에 실린 불교문학 작품이나 불교문화 유산, 스님, 재가불자나 일반인을 통한 불교적인 내용의 글이 대폭 삭제됐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은 제망매 가항가, 월명사, 따뜻한 석탑(기행문, 최신헤, 다보탑(시조, 김삼익), 복종(시, 한용운), 만해 한용운(전기문, 김재홍), 공양미 삼백 석(고대소설 작자미상), 우리나라의 민화(설명문, 김철순), 월출산과 남도의 불기행문, 유홍준), 무궁화(수필, 유달영), 전통 문화와 효 사상(설명문, 홍익식), 승무(시, 조지훈) 등이 다.

'자장'이 누구인지 언급없어

▶국어= 52쪽 '진흥왕의 영토 확장'에서 '진흥왕은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를 짓고 대규모의 불교 집회를 열어 국가의 평안과 발전을 빌기도 하였다'는 부분에서 자장이 누구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자장'을 '승려 자장'으로 표기해야 하고, '대규모의 불교 집회'를 '대규모 불교 법회'로 바꿔야 한다.

▶수학= 7차 교육과정 수학7-가(중학교1학년) 11중 교과서의 자승서,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불교적 오류와 문제점은 대부분

서양적인 수학사관에 의해 기술되어 기독교적 성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공집합과 0의 비유에서 '성경의 창세기의 신처럼'으로 인용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주)고려출판 수학7-가(중학교1학년) 41쪽에는 이진법에서 라이프니츠의 '이것은

“정부에 수정요구운동 펴겠다”

청소년 문화연구소 김형중 소장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개발 중인 교과서 내의 불교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해 오류나 종교 편향적 서술 등이 파악될 경우, 반드시 불교계 차원의 수정요구를 제기할 것입니다.”

1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김형중 교법사(명성여고는 청소년들의 인성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교과서라며 이 부분에서 만큼은 '호법신장'이 되겠다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김 교법사는 “개정된 교과서를 보면, 기독교나 천주교 관련 내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라며, “불교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도 상당수가 있는데, 용어나 내용 자체조차 난해하게 서술돼 있어 자칫 청소년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종교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쉬운 용어 등 기초자료 제공 시급

김 소장은 무엇보다도 불교계에서 명확하고 쉬운 용어풀이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상설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김 소장은 중립대학의 사법대학과 연계한 연구 활동 선행은 물론, 종단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공동 인도학불교학 대회

7월 6~7일 동국대서... 학자 500명 참석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를 기념해 '불교학계의 공동 월드컵'이 열린다.

동국대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는 한국과 일본의 불교학자 500여 명이 참여하는 '한·일 공동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를 7월 6~7일 동국대에서 개최한다.

일본학자 300여 명과 국내 학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국 불교를 세계 불교학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학술대회는 마에다 센가쿠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과 한국측 대회장인 송석구 동

국대 <인도학불교학>은 불교학, 인도학 관련 연구자들의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권위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학생 포함 1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동국대, 원광대, 동아대, 전통불교연구원 이 이사 학교로 가입해 있다. 매년 도쿄와 교토를 오가며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해외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측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인 송석구 스님은 "세계 불교학계에 인지도가 낮은 동국대를 널리 알리고, 한국 불교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모두 10개 분과로 나눠 250명 발표

국내외 학자 51명 한국불교 관련 논문

국대 총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모두 10개 분과에 250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개최 학교에서 특별 분과를 신설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한국 불교 관련 분과를 2개로 늘렸다. 7분과 국내 학자 25명, 8분과 외국학자 26명 등 모두 51명이 한국 불교 관련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1951년 동경대 인도철학과에서 시작한 일본 인도학불교학회는 현재 일본 내 80여 개 불교대학과 50여 개 종합대학의 불교학자 등 25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초대형 학회다. 한국은 물론 대만,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타이 등 세계 각국의 불교학자들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 학회에서 일년에 두 번 내는 논문

다"고 평가했다. 학회 입장에서 50주년을 넘기면서 일본을 벗어나 국제적 학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획이기도 하다.

마에다 센가쿠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은 미리 배포한 기조 강연문에서 "세계로 뻗어나간 불교가 각 지역에서 특성에 맞게 발전하고 지역 불교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한·일 공동 인도학 학술대회가 세계적인 지역 불교 연구 네트워크 생성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40세 미만 신진학자에게 주는 학술상과 중진학자에게 주는 저술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인생을 바꾸는 아ват타코스

아ват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심지만 강력한 마음스핀 여행-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ват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navatar.com
세이아ват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第24代 桐華寺 住持 一應堂 知性 和尚 晋山式

삼보에 귀의합니다.

신록이 장관인 천지녹음의 향연속에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의 제24대 주지이신 일응당 지성 화상의 주지 진산식을 봉행코져 합니다.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불기 2546(2002)년 6월 8일 (음 4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 장 소: 동화사 통일대불 앞 범회장
- 문 의: Tel (053)982-0101~2, Fax (053)985-4405

불기 2546(2002)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합장